

〈청산별곡〉의 “에정지”에 대한 새로운 고찰

— ‘御井址’의 변형일 가능성

임재욱*

<차례>

1. 서론
2. 작품 해석의 방향
3. “에정지”를 ‘御井址’로 볼 수 있는 근거
 - 1) 용례 및 어학적 근거
 - 2) 문학적 근거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청산별곡〉 제7연의 난해구 “에정지”가 ‘御井址’의 변형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한 글이다.

‘임금이 마시는 물을 길는 우물’을 뜻하는 ‘御井’은 오랜 옛날인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왕도가 있었던 수많은 장소에 존재했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 다수의 유적이 남아있다. 우리의 옛 문헌에는 ‘御井’이라는 말과 함께 ‘御井洞’, ‘御井直’, ‘御井村’과 같은 합성어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실 세계의 언어에서는 ‘御井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청산별곡〉이 향유되던 시대에도 ‘御井址’라는 단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御井址’의 조선 초기 한자음은 ‘어정지’였다. 이 ‘어정지’가 〈청산별곡〉에 기록된 형태인 “에정지”로 바뀐 것은 i-모음역행동화(음라우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어정지”의 “정”에 포함된 반모음 ‘j’의 영향으로 그 앞의 모음 ‘어’가 ‘에’로 바뀐 것이다.

〈청산별곡〉을 입과 헤어진 여인의 노래로 보는 관점에서 읽을 때, ‘御井址’에 포함된 ‘御’ 자는 왕을 상징하는 제7연의 “사슴”과 관련되어 화자의 애정 상대가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

임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고전 문학 작품에서와 같이 애정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井’은 사랑의 노래로 해석되는 이 작품의 전체적 정서 및 주제와 잘 호응한다. 어떤 것이 있다가 사라지고 흔적만 남은 ‘터’를 의미하는 ‘址’는 ‘흔적만 남은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작품의 제3연에 ‘떠난 입’을 가리키는 “물아래 가던 새”가 등장하는 것과 조응한다.

이렇게 볼 때 “예정지”가 포함된 제7연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가 ‘御井’ 터를 지나가다가 임과의 옛 사랑 또는 궁중에서 임금과 함께 지낸 지난 시절을 회상하면서 부른 노래로 읽을 수 있다. “예정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청산별곡〉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쓴 남성 작가의 작품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戀君之情을 노래한 또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청산별곡, 예정지, 御井址, 고려속요, 戀君之情

1. 서론

〈청산별곡〉의 제7연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奚琴을 혀거를 드로라”에 나오는 “예정지”는 이 작품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어구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어 왔지만,¹⁾ 대부분의 해석이 용례를 갖추고 있지

1) “예정지”에 대해서는 양주동이 그 의미를 ‘딴 부엌’으로 추정한(『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7, 324~325쪽.) 이래, ‘예정지(豫定地)’의 오기(박병욱, 「청산별곡의 언어유희적 해석」, 『경기어문학』 8,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158~180쪽.), ‘마당을 돌아서’(장지영, 「옛 노래 읽기(청산별곡)」, 『한글』 110, 한글학회, 1955, 11~20쪽.), ‘芮 宗智(해금의 명수 오! 종지여!)(서수생, 「청산별곡고」, 『교육연구지』 1,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1963, 37쪽.), ‘일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김언중, 「청산별곡 재진단: 그 Nihilism의 여백」, 『고봉논문집』 1, 경희대학교 학도호국단, 1977, 27~37쪽.), ‘울타리로 에워싸인 곳 또는 유배지’(이우영, 「청산별곡의 새로운 해석: 어석을 중심으로」, 『현대시학』 174, 현대시학사, 1983, 142~161쪽.), ‘마당 또는 벌(野)’(전규태, 『고려가요의 연구』, 백문사, 1991, 279~286쪽.), ‘돌아가는 갈림길’(성호경, 「청

못하거나 어학적 규칙에 위배되거나 작품의 전체적 의미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학적 해석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학계의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하면서 “에정지”를 ‘御井址’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 가. 관련 용례를 갖출 것.
- 나. 어학적 원칙에 부합할 것.
- 다. 작품의 전체적 사상이나 주제와 어울리는 의미를 지닐 것.

지금까지 이루어진 “에정지”에 대한 해석 가운데에는 본고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豫定地’²⁾, ‘芮 宗智’³⁾, ‘準淨地’⁴⁾, ‘於亭地’⁵⁾ 등과 같이 그것을

산별곡의 ‘에정지’에 대하여, 『한국시가의 유형과 양식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111쪽.), ‘準淨地(淨地, 樂地에 가까운 곳)’(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식 연구』, 국학자료원, 1994, 214~243쪽.), ‘해 저물 무렵’(서재극, 『여요 주석의 문제점 분석: 동동·청산별곡을 중심으로』, 『어문학』 19, 어문학회, 1968, 8~9쪽.), ‘어정어정(遲遲)’(권재선, 『청산별곡 어석고』, 『논문집』 7, 한국사회사업대학, 1977, 199~226쪽.), ‘여적지(여태껏)’(장혜원, 『청산별곡 ‘에정지’의 신해석』, 『어문교육논집』 6,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1982, 153~168쪽.), ‘移秧歌’(송재주, 『청산별곡 중 “에정지”에 대하여』, 『국어교육』 3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1, 266~267쪽.), ‘배 모양을 한 외딴 지형의 지역’(최철·박재민, 『석주 고려가요』, 이회, 2003, 128~129쪽.) 등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시도된 바 있다.

- 2) 박병욱, 앞의 논문, 158~180쪽. ‘豫定地’가 현대어에서는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로 존재하지만 <청산별곡>이 향유된 당시에 그런 말이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다. ‘豫定地’의 ‘豫’와 “에정지”의 ‘에’는 음이 유사하기는 해도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서수생, 앞의 논문, 37쪽. ‘芮 宗智’의 ‘芮’와 ‘宗’은 “에정지”의 ‘에’ 및 ‘정’과 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 4) 박병채, 앞의 책, 214~243쪽. ‘準淨地’라는 말은 용례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準’은 “에정지”의 ‘에’와는 음이 전혀 다르다.
- 5) 허재영, 『수자리와 정지』,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사, 2007. 12. 6., 30면. ‘於亭地’는 한문 문장이나 한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구인데, 우리말 노래인 <청산별곡>에

한자어로 풀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석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예정지”의 “지”에 해당하는 한자를 ‘地’로 파악한 것도 문제이다. 『악장가사』가 편찬되었던 때로 추정되는 조선 전기, 곧 임병 양란 이전 시기에 “地”는 ‘지’가 아니라 ‘디’로 발음되었기 때문이다.⁶⁾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靑山別曲〉을 男女相悅之詞가 포함된 戀情의 노래로 보는 관점은 지금까지 전혀 해독의 가닥을 잡을 수 없었던 ‘예정지’의 해석에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것은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의 ‘가다가’를 고려할 때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되, 그 장소가 고려시대의 향유층 사이에 사랑과 관련되거나 그것을 매개하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⁷⁾와 같은 논의를 통해 “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본고는 그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수정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작품 해석의 방향⁸⁾

〈청산별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수많은 해석이 이루어져 왔는데, 본고에서는 다양한 해석의 방향들 가운데, 임과 헤어진 여인

이러한 한문투의 어구가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1496년에 편찬된 『六祖法寶壇經諺解』와 같은 조선 전기의 문헌에 ‘地’의 음은 ‘디’로 표기되어 있다.(권인한,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2009, 415쪽.)

7) 참고, 「男女相悅之詞로 본 〈靑山別曲〉」, 『어문연구』 46-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158쪽.

8) 제2장 “〈청산별곡〉 제8연의 해석 방향”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위의 논문, 146~148쪽에서 인용함.

의 노래로 보는 관점, 곧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택하기로 한다.⁹⁾ 이러한 관점을 택하는 이유는, 해당 관점이 작품에 포함된 어구와 표현들의 의미를, 어학적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 후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8연에 등장하는 몇몇 선어말어미의 어학적 기능을 작품 해석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여타의 관점과 달리 이 작품을 입과 헤어진 여인의 노래로 보는 관점은 어학적 해석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한 해석의 출발점이 된 제8연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다니 비 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¹⁰⁾

제8연에는 현대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선어말어미인 “오”와 “습”이 포함된 어구가 나타난다. “비조라” “잡스와니”가 그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작품 해석에 정확히 반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제8연의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9) 〈청산별곡〉을 입과 헤어진 여인의 노래로 보는 관점은, 조운제의 “사랑의 불꽃에 가슴을 조리어 煩悶하는 心情을 그린 詩歌”(『한국시가사강』, 을유문화사, 1954, 148쪽.)와 양주동의 “작사랑의 哀想을 中心으로 하여 맘 둘 곳 업는 生의 悲哀를 노래한 것인데”(양주동, 앞의 책, 1947, 307쪽.)라는 작품 해설에서 단서가 마련된 이래, 김완진(『〈청산별곡〉 결연에 대한 일 고찰』, 『문학과 언어』, 탑출판사, 1980, 40~42쪽.)의 논의에서 본격화되었고, 그 이후로 김형기(『청산별곡의 성격에 대하여』, 『어문연구』 8, 충남대학교 어문연구회, 1972, 16쪽.), 이인모(『“청산별곡” 내용의 재검토』, 『국어국문학』 61, 국어국문학회, 1973, 119~120쪽.), 최철(『고려 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213쪽.), 줄고(『사가 합성의 관점에서 본 〈청산별곡〉의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189~191쪽.), 줄고(앞의 논문, 2018, 141~163쪽.), 줄고(『〈청산별곡〉 제8연의 “밧와”에 대하여』, 『우리말글』 85, 우리말글학회, 2020, 93~113쪽.) 등의 논의에서 계승·발전되었다.

10) 장서각본 『악장가사』(김병준, 『악장가사 주해』, 도서출판 다운샘, 2004, 186쪽.)

“비조라”에 포함된 선어말어미 ‘오’는 일인칭 화자를 표시하는 기능을 지닌 형태소이다. 이러한 ‘오’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술을 빚는 동작의 주체를 화자가 아닌 제3자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의 기능을 고려하면, “비조라”의 주체는 화자 자신인 ‘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잡스와니”에 포함된 선어말어미 ‘습’은 동사의 목적어를 존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습’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누룩이 잡은 대상을 화자 자신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의 정확한 기능을 반영한다면, “잡스와니”의 목적어는 화자 자신이 아니라 화자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잡스와니”의 목적어가 될,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는 사랑을 노래한 고려속요에 빈번히 등장하는 ‘임’을 떠올릴 수 있다.¹¹⁾

“잡스와니”의 목적어가 ‘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은 표현을 지니고 있는 〈가시리〉의 문맥을 고려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선흐면 아니올세라

설은 님 보내옵노니
 가시는 듯 도셔오쇼셔¹²⁾

11) 김완진, 앞의 논문, 40~42쪽 참고.

12) 봉취문고본 『속악가사』에서 조흥구, 후렴구 등을 생략하고 인용.

〈가시리〉 “잡스와 두어리마느는”의 “잡스와”에도 선어말어미 ‘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잡스와”의 목적어인 ‘임’을 존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청산별곡〉 제8연의 “...누로기 ... 잡스와니”는 ‘누룩이 (임을) 붙잡으니’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시리〉에서 화자 자신이 입을 붙잡겠다고 한 것과 달리 〈청산별곡〉에서는 ‘누룩’이 입을 잡는다고 하여, “잡스와”라는 동작의 주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두 작품에서 모두 ‘임’을 높임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별곡〉 제8연의 화자 또한 〈가시리〉의 경우와 같은 여성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제8연의 화자를 여성으로 보면, 일인칭 화자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 ‘오’가 포함된 “비조라”의 주체를 화자 자신으로 보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된다. “강수를 비조라”는 여성인 화자가 입을 위해 ‘강술을 빚어 놓았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청산별곡〉 제8연은, 화자가 입을 위해 “비 브른 독에 설진 강술”을 빚어 놓았는데, 그 입을 ‘누룩’¹³⁾이 사로잡음에 따라 자신이 준비한

13) 〈청산별곡〉 제8연을 본고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누룩”은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표현인 “설진 강술”과 대조되어 있는 존재로, 화자가 사모하는 임의 마음을 사로잡아 화자와 임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다른 여인을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브른 독과 ‘조롱’은 그 모양이 상반됨으로써 대립적이다. 배가 불룩한 독과 허리가 잘룩한 조롱박은 대조적인 형상을 띠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기능상으로도 대립된다. 독은 술을 담아 두는 것이요 조롱은 독에 담긴 술을 떠먹는 바가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독은 술이건 뭐건 가득 차 있어야 제격이나 조롱박은 독이나 항아리에 담긴 것을 퍼내어야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니, 독이 충만을 의미한다면 조롱은 고갈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 ‘설진 강술’과 ‘누룩’도 그 미감이 상반됨으로써 대립적이다. 잘 익어 농도가 진한 술과 아직 익지 않아 술맛이 나지 않는 누룩은 그 맛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하겠다. 술을 만드는 데는 누룩을 사용한다. 누룩은 재료이고 술은 완성품이다. 재료인 누룩이 미숙을 의미한다면 완성품인 술은 완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브른 도끼 비즌 설진 강술’과 ‘조롱꽃 누룩’은 그 이미지가 대립되는 것이니, 전자가 풍요로운 생산의 심상을 나타낸다면 후자는 빈약한 불모의 심상을 나타낸다. 배가 불룩하니 모양은 사나워도 그 맛은 진하고 감칠맛 도는 것이 ‘비브른 도끼 비즌 설진 강술’이요, 허리가

술을 맛볼 사람이 없게 된 상황과 그에 대한 슬픔 내지는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⁴⁾ 이 작품을 임과 헤어진 여인의 노래로 보는 관점은 바로 ‘오’나 ‘습’과 같은 어학적 요소들에 대한 정밀한 천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었던 셈이다.

정리하면, 임과 헤어진 여인의 노래로 보는 관점에서는 “설진 강수를 비조라”에서 “비조라”에 포함되어 있는 선어말어미 “오”가 일인칭 화자와 호응하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비조라”의 주체는 화자 자신이 되어야 하고,¹⁵⁾ “조롱곳 누르기 밭과 잡스와니”에서 “잡스와니”에 삽입되어 있는 선어말어미 ‘습’은 객체를 존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사 “잡스와니”의 목적어는 ‘임’과 같은 존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¹⁶⁾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제8연은, 화자가 사랑하는 임을 위해 ‘배브른 독에 설진 강술’을 빚어 놓았는데, 임이 ‘누룩’으로 비유된 다른 여인에게 사로잡혀 화자에게로 오지 못하게 된 이별의 정황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잘록하니 모양은 고와도 제대로 익지 않아 맛이 불품없는 것이 ‘조롱곳 누룩’이라 하겠다. 즉, 여기서 화자는 자신을 ‘비브른 도기 비즌 설진 강술’에 비유하고 있고, ‘조롱곳 누룩’으로는 제3의 여자를 비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제3의 여자가 자신의 임을 앓아(잡스와) 간 것이리라.”(졸고, 앞의 논문, 2013, 189~191쪽.)

14) 위의 논문, 같은 곳.

15) 제8연의 “가다니 비 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에서 “가다니”의 주체를 화자 자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본고에서처럼 “비조라”의 주체를 화자 자신으로 보게 되면 “가다니”와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말에서 ‘(내가) 갔더니 (내가) 빗노라’와 같은 식의 발화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다니”에 대한, “비조라”와 잘 호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16) 김완진, 앞의 논문, 40~42쪽.

3. “에정지”를 ‘御井址’로 볼 수 있는 근거

1) 용례 및 어학적 근거

(1) ‘御井’ 및 ‘御井址’의 의미와 용례

‘御井’은 ‘임금님께 올릴 물을 긴던 우물’의 의미로 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다.¹⁷⁾ 이것은 중국, 일본, 한국에서 예로부터 흔히 쓰이던 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御井’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 종로구의 宗廟에 있는 御井(조선), 경북 고령군의 대가야 유적지에 있는 御井(가야), 충남 부여군 花枝山 유적지에 있는 御井(백제), 경기도 남양주시의 洪陵 터에 있는 御井(조선), 경기도 광주시의 남한산성에 있는 御井(조선), 강원도 삼척시 葛夜山の 悉直國 성지에 있는 御井(삼국), 경기도 평택시 萬壽寺에 있는 御井(조선), 경남 밀양시 하남읍의 유적지에 있는 御井(신라), 경북 의성군 탑동에 있는 ‘오샘’이라는 이름의 御井(신라), 서울시 송파구의 풍납토성에 있는 御井(백제), 경기도 수원시의 亭子山에 있는 御井(백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국 각지의 어정에는 삼국 초기의 悉直國으로부터 조선 말기의 고종 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거쳐 갔던 수많은 왕들의 행적이 얽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정’은 과거의 문헌에도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종(高宗) 4년 3월 임오(壬午)에 여우가 어과원(御果園)에서 울었다. 6년 4월 임진(壬辰)에 범이 상춘정(賞春亭)에 들어왔다. 11월 병진(丙辰)에 노루가 광화문(廣化門)으로부터 나왔다. 7년 4월 병자(丙子)에 범이 수창궁(壽昌宮) 침전(寢殿)에 들어왔다. 9년 9월 정미(丁未)에 시슴이 저자에 들어왔다. 13년 8월 경술(庚戌)에 곰이 성(城)에 들어왔다. 10월 정유(丁酉)에 곰이 또 시가(市

1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사전』, 창작마을, 2009, 4233쪽.

街)에 들어왔다. 22년 2월 신사(辛巳)에 범이 어정(御井)에 들어왔다. 29년 4월
에 북계(北界)의 곰들이 많이 해도(海島)에 들어왔다.¹⁸⁾

이 기사는 고려의 도성 개성에 범, 노루, 사슴, 곰 등의 각종 동물이 침입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고종 22년(1235년)에는 범이 ‘御井’에 들어왔다
고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려 시대에도 임금이 마실 물을 길던 우물이
있었고 그것을 ‘御井’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御井’은 문학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 시절 옥 샘물을 왕궁으로 바칠 때
깊디깊은 백마강에 서린 패기 웅혼하였지.
말 탄 사람이 조수부 들고가 조달하고
조정 백관들 잔 들어 샘물을 하사받았건만,
옛 벽돌에는 무지갯빛 사라진 채 이끼 파랗고
버려진 마른 우물 비에 씻겨 담쟁이 붉구나.
자온대 아랫길을 머리 돌려 바라보나니
물 길던 도르래 소리 저녁 안개 속에 끊겼구나.

- 금정에서 옛 역사를 회상하며(금정은 청양현 북쪽에 있는데, 곧 백제의
왕이 마셨던 우물이다.)¹⁹⁾

이 시는 다산 정약용이 1795년(정조 19) 형 정약전(丁若銓)이 서학(西
學)과 무관하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정조의 노여움을 사서 7월 26일 금정도

18) 高宗四年三月壬午, 狐鳴御果園, 六年四月壬辰, 虎入賞春亭, 十一月丙辰, 有獐,
出自廣化門, 七年四月丙子, 虎入壽昌宮寢殿, 九年九月丁未, 鹿入市, 十三年八
月庚戌, 熊入城, 十月丁酉, 熊又入市街, 二十二年二月辛巳, 虎入御井, 二十九年
四月, 北界熊, 多入海島. (『高麗史』, 「志」 八卷.)

19) 當年玉溜進王宮, 白馬江深伯氣雄. 一騎飛塵調水遠, 百官揚觶賜沾同. 虹銷古
鵝莓苔綠, 雨洗荒唐晉薛荔紅. 回首自溫臺下路, 轆轤聲斷暮煙中. <金井懷古>
【金井在青陽縣北, 卽百濟御井也】(丁若鏞, 『與猶堂全書』 제1집 제2권.)

찰방에 보임되어 7월 29일 금정역에 이르렀다가, 그곳에 있는 金井이 백제의 왕이 마시던 우물 곧 ‘御井’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백제의 신료들이 이 샘물을 하사받으면서 임금과 화락하게 지내던 옛 역사를 회고하고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²⁰⁾

여기서 ‘御井’과 거기서 길러서 바치고 또 하사받는 물이 임금과 신하 사이의 화락한 관계를 상징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을 포함한 많은 문학 작품에서 ‘우물’은 사람 사이의 우호적 관계에 대한 상징물 혹은 남녀 간의 사랑의 계기나 매개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²¹⁾ 우물의 그러한 의미는 〈청산별곡〉 “에정지”의 해석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御井’의 용례가 풍부한 것과 달리 ‘御井址’의 용례는 문헌상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 ‘御井’과 ‘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御井址’라는 한자어도 충분히 가능한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御井洞

반촌 동북쪽의 산골에는 기이한 곳이 많으니, 이를테면 송동(宋洞)·포동(浦洞)·에정동(御井洞)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호젓하고 깊숙하게 굽이졌는데, 복사꽃 나무가 두루 심겨진 가운데 이따금 인가가 자리잡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신선 세계 같다. 이 때문에 봄철이면 구경나온 상춘객들이 많다고 한다.²²⁾

20) 丁若鏞의 〈金井懷古〉에 대해서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실린 심경호의 번역과 해석을 참고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07857&cid=62811&categoryId=63769>)

21) 대표적 예로 고전시가 〈쌍화점〉, 고전소설 〈절화기담〉, 설화 〈지하국대적퇴기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우물이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는가 하는 점 또한 흥미로운 문제가 될 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22) 泮村東北山谷間。多奇境。若宋洞，浦洞，御井洞等處。皆幽邃屈曲。遍種桃花。

御井直(어정지기)

이성룡이 혼전 참봉이 전하는 종실의 뜻으로 아뢰기를, “국恤(國恤) 때에는 3년 동안 본전(本殿) 수라간의 은기취색군(銀器取色軍) 6명, 옥등취색군(玉燈取色軍) 및 제기취색군(祭器取色軍) 2명을 시민(市民)으로 정해 보내는 것이 본래 옛 규례인데, 중간에 시민에게 미칠 폐단을 우려하여 3명을 줄여 단지 5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특진관 김동필(金東弼)이 아뢴 것으로 인해 위군(衛軍)을 정하여 보내도록 결정하였기 때문에 초기(草記)를 올려 변동하려 하였는데 그런 와중에 또 병조에서 본전의 금화지기(禁火直)와 어정지기(御井直) 등의 군병을 변동하여 쓰겠다고 하였습니다.²³⁾

御井村

월봉의로 도라들고 어정촌 기가 짓고 회안봉 구름 써다²⁴⁾

-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별주부전>

한국의 옛 문헌에 ‘御井洞’, ‘御井直’, ‘御井村’ 등과 같은 다양한 합성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御井’이 어떠한 한자외도 결합할 수 있을 만큼 매우 활용 빈도가 높은 어휘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에 따라 ‘터’를 뜻하는

時有人家。望若仙界。故春日多遊賞之客云。〈泮中雜詠〉(尹楮, 『無名子集』, 詩稿 第二冊.)

23) 李聖龍, 以魂殿參奉, 以宗室意啓曰, 國恤時, 三年內, 本殿水刺間銀器取色軍六名, 玉燈及祭器取色軍二名, 以市民定送者, 自是古例。而中間爲慮市民之弊, 減其三名, 只定五名矣。今因特進官金東弼所啓, 以衛軍定送事定奪, 故方欲草記變通之際, 又自兵曹, 以本殿禁火直·御井直等軍, 推移使用云。(『承政院日記』, 英祖 7년 辛亥 2월 8일.)

24) Uniconc 프로그램에서 검색 및 인용. <별주부전>의 “어정촌”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는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어정촌에 개는 짓고 회안봉에 구름 떴다”(<배비장전>), “월봉의로 도라들고 어정촌에 개는 짓고 회안봉에 구름 니러 거지 중턱에 높히 떴다”(〈약산동대〉, 구할자본 『고소설전집』 8권). 이 세 가지 형태 가운데 어느 것이 원형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배비장전>의 “어정촌”과 <약산동대>의 “어정촌”이, ‘御井’이 있는 마을을 뜻하는 ‘御井村’의 한자음 ‘어정촌’이 와전되어 나타난 형태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址’와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²⁵⁾

비록 문헌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御井址’라는 이름으로 전해오고 있는 지명이나 유적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御井址’라는 이름의 유적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군데가 있다.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 경북 고령군의 대가야 유적지에 있는 御井²⁶⁾(가야)과 경남 밀양시 하남읍의 유적지에 있는 御井²⁷⁾(신라)이 그것이다. 이 두 군데 유적지에 예로부터 ‘御井’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다만 ‘御井’ 터를 ‘御井址’로 부른 것이 근래에 와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예로부터 그렇게 불렀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기는 해도 이 두 유적지의 명칭이 ‘御井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은 문헌상의 기록과는 무관하게 현실 세계의 언어에는 ‘御井址’라는 말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더 나아가 고려시대 〈청산별곡〉이 향유될 당시에도 ‘御井址’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청산별곡〉 제7연의 “에정지”를 ‘御井址’로 볼 경우, 그것이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한자로 기록되지 않고 한글로 표기된 점은 한 가지 의문으로 남는다. 이 작품에서는 물론이고 『악장가사』에 기록된 대부분의 시가 작품에서 한자어 어휘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함으로써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5) 일본어에서도 ‘御井’은 그 자체로 쓰일 뿐 아니라 다른 한자와 결합하여 ‘御井神’, ‘御井神社’, ‘御井郡’, ‘御井の寺’, ‘御井亭’, ‘御井歌’, ‘御井池’ 등과 같은 합성어로 활용되기도 한다.

26) <https://cafe.daum.net/cjttmdh/T2dv/2124?q=%EC%96%B4%EC%A0%95%EC%A7%80>.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128-1번지에 있는 이 유적지는 ‘御井址’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기도 하다. “高靈 延詔里 傳 御井址”(박천수 외, 『가야의 유적과 유물』, 학연문화사, 2003, 29~30쪽.)

27) <https://cafe.daum.net/historymiryang/OPlm/5?q=%EC%96%B4%EC%A0%95%EC%A7%80>.

첫 번째는 『악장가사』의 한자어 표기에도 예외는 있다는 사실이다. ‘小城京’으로 풀이된 바 있는 <서경별곡>의 “쇼성경”²⁸⁾, ‘細모래’로 풀이된 바 있는 <정석가>의 “세몰애”²⁹⁾, ‘強한 술’로 풀이된 바 있는 <청산별곡> “강수틀”의 ‘강술’³⁰⁾, ‘沼’라는 한자가 있지만 한글로 기록된 <만전춘별사> “소콧 얼면”의 “소”³¹⁾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 한 가지 사항은 당대 <청산별곡>의 가창자들이 ‘御井址’를 원래의 음대로 ‘어정지’로 발음한 것이 아니라 i-모음역행동화(우라우트)에 의해 변형된 형태인 “에정지”로 발음했다는 점이다. ‘어정지’의 ‘어’가 ‘에’로 바뀌에 따라 그것을 표기할 적절한 한자를 찾지 못해 한글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나머지 두 글자인 ‘정’과 ‘지’도 첫 글자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글로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자어가 그 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자로 기록되지 않고 한글로 기록된 사례는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국립한글박물관본 『청구영언』의 시조 작품 <두터비 푸리를 물고>에 나오는 “에혈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김선풍 소장본 『詩餘』나 규장각본 『永言』 등과 같은 다른 가집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영언』 외의 대다수의 가집에는 해당 어구가 “瘀血질”로 기록되어 있다.³²⁾ 이러한 사실은 청구영언의 편찬자가 “瘀血”을 ‘에혈’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에혈’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등을 알려준다.

28) 양주동, 앞의 책, 282쪽; 임주탁, 「청산별곡의 독법과 해석」, 『한국시가연구』 13, 한국시가학회, 2003, 97쪽.

29) 위의 책, 337쪽.

30) 위의 책, 329쪽.

31) 위의 책, 376쪽.

32) 김홍규 외,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315쪽.

(2) ‘御井址’가 “에정지”로 바뀐 이유와 관련 사례

『악장가사』가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전기의 ‘御井址’의 발음은 ‘어정지’였다.³³⁾ 특히 “에정지”의 ‘지’에 해당하는 한자로 ‘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조선 전기에 ‘地’는 ‘지’가 아니라 ‘디’로 발음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⁴⁾ ‘地’의 음이 ‘디’에서 ‘지’로 바뀐 것은 구개음화에 의한 것으로, 그것이 일어난 시기는 대략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 이후이다.³⁵⁾

‘어정지’가 “에정지”로 바뀐 것은 i-모음역행동화(움라우트)³⁶⁾에 의한 변화로 판단된다. i-모음역행동화(움라우트)에는 흔히 알려진 ‘애비<아비’, ‘에미<어미’ 외에도 매우 많은 사례가 있었고 한반도 다양한 지역의 언어에서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은 오늘날과 달리 “지영” 정도로 발음된 이중모음이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반모음 ‘j’의 영향으로 그 앞의 ‘어’가 ‘에’로 바뀐 것이다. ‘에엿브다’, ‘엿데’, ‘에헐’과 같은 유사 용례가 있다.

33) 조선 전기의 중세국어에서 ‘御’의 음은 ‘어’, ‘井’의 음은 ‘정’, ‘址’의 음은 ‘지’였다. ‘御’의 음은 1496년에 간행된 『眞言勸供諺解』에 “어”로, ‘井’의 음은 1518년에 편찬된 『翻譯小學』에 “정”으로, ‘址’의 음은 1518년에 편찬된 『翻譯小學』에 “지”로 표기되어 있다.(권인환, 앞의 책, 274·383·415쪽.) 세 글자 음의 反切式 표기는 다음과 같다. “御 : 牛倨切”, “井 : 子郢切”, “址 : 諸市切”.(민중서림 편집국,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98, 728·137·454쪽.)

34) “에정지”를 한자어로 풀이한 선행연구에서 ‘지’를 대개 ‘地’에 대응시켜 놓고 있으나(박병욱, 박병채, 허재영의 견해), 조선 전기의 ‘地’의 음은 ‘디’였기 때문에 “에정지”의 ‘지’에 해당하는 한자가 될 수 없다. 만약 “에정지”의 “지”에 해당하는 한자가 ‘地’였다면 그것은 ‘지’가 아니라 ‘디’로 표기되어 “에정디”와 같은 형태도 남게 되었을 것이다. ‘地’ 음의 반절식 표기는 “徒四切”이다.(민중서림 편집국, 앞의 책, 451쪽.) “四” 음의 反切式 표기는 “息利切”.(위의 책, 434쪽.)

35) 이기문,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2009, 208쪽.

36) 움라우트는 단어 또는 어절에 있어서, ‘ㅏ’, ‘ㅑ’, ‘ㅓ’ 따위의 후설 모음이 다음 음절에 오는 ‘ㅣ’나 ‘ㅣ’ 계(系) 모음(반모음 ‘j’ 등)의 영향을 받아 전설 모음 ‘ㅘ’, ‘ㅙ’, ‘ㅚ’ 따위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잡히다’가 ‘좨히다’로, ‘먹히다’가 ‘멕히다’로, ‘눅이다’가 ‘눅이다’로 발음되는 따위이다.

에엿브다<어엿브다

“어린 아히 에엿블사”(『朴通事諺解 重刊本』 下 43, 변섭, 박세화 등이 초간
본을 편찬한 1677년 이후 간행)

“에엿블 민”(『類合』 下 23) (16세기, 崔世珍 편찬)

“에엿븐 더 말 모르는 증싱들히”(可憐)(『朴通事諺解 初刊本』 上 21, 成宗
(1457~1494) 때 崔世珍이 엮고, 1677년에 변섭, 권대운, 박세화 등이 다시 간행).

“에엿비 너기던 주를 보고”(『翻譯小學』 八 27, 1518년 金詮·崔淑生 등 간행)

엿데<엇데

“工課를 사므면 엿데 犂牛의 꼬리 드슴과 다르리오: 以爲工課者何異犂牛
愛尾”(六祖法寶壇經諺解 中 64, 1496년 편찬)

에혈<에혈<어혈

“모쳐라 늘낸 낼식만정 에혈질 번 흐패라”(국립한글박물관본 『청구영언』
117쪽, 1728년 김천택 편찬)

이 가운데 “에혈”은 다른 자료에는 대체로 같은 작품의 해당 어구가 “瘀
血”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어혈’에서 변화한 형태로 보인다. 다만
“어혈”에서 “에혈”로의 변화가 바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 사이에
“에혈”로의 변화를 설정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중간 단계를 설정해야 둘
사이의 변화를 쉽게 납득할 수 있게 된다. 곧 『청구영언』의 “에혈질”의 “에
혈”은 ‘어혈>에혈>에혈’의 단계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³⁷⁾ 이 중 ‘어혈>에혈’의 변화에서 i-모음역행동화(움라우트)의 한 가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i-역행동화(움라우트)는 대체로 18세기와 19세기의 교체기(18세기 후

37) 『청구영언』에 기록된 “에혈”의 “혈”은 “혈”의 오기이거나 “혈”이 단모음화한 형태로
보인다.

반)에 이르는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³⁸⁾ 위의 용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도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³⁹⁾ 18세기 초엽(『청구영언』)과 17세기(『朴通事諺解 初刊本』) 및 16세기(『類合』, 『翻譯小學』)에 간행된 문헌에서뿐 아니라, 『六祖法寶壇經諺解』 같은 15세기에 간행된 문헌에서도 관련 용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⁴⁰⁾

2) 문학적 근거

(1) ‘御’, ‘井’, ‘址’에 담긴 의미 및 작품 속 다른 시어와의 연관성

가) ‘御’에 담긴 의미 : 임금을 가리키는 ‘御’ 자는 이 작품 제7연에 나오는 “사슴”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슴’은 보통 왕이나 황제로 해석된

38) 이기문, 앞의 책, 2009, 211~212쪽; 이기문,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1997, 127쪽; 신중진, 「국어 움라우트 연구사-동화주, 피동화주, 개재자음의 본질을 찾아서-」, 『울산어문논집』 15, 울산대학교, 2001, 160쪽. 이기문은 우리말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이 ‘ㅙ’와 ‘ㅚ’의 단모음화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아, 두 음운의 단모음화가 이루어지는 18세기와 19세기의 교체기(18세기 후반 무렵)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았다.

39) 고려 시대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청산별곡〉은 조선시대에도 궁중에서 지속적으로 가창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 움라우트와 같은 조선 전기의 언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40) 움라우트는 대개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ㄴ, ㄷ, ㅌ, ㅍ, ㅅ’ 등의 치조음이나 ‘ㄱ, ㅋ, ㆁ’ 등의 구개음이 개재하는 경우에는 ... 실현이 제약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어휘에서는 “피동화주와 동화주 사이에 치조음이나 구개음이 개재되어도 ...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박경래, 「움라우트」, 『새국어생활』 제9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1999, 109~110쪽.) 피동화주와 동화주 사이에 구개음이 개재하는 조건에서 움라우트가 이루어진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강애지<강아지’(남원 방언), ‘매애지<망아지’(평북 방언), ‘쇠애지<송아지’(평안 방언), ‘애질거리다<야질거리다’, ‘애질대다<야질대다’, ‘애지랑스럽다<야지랑스럽다’, ‘애치<아치’(황해 방언), ‘애치<여치’(경북 방언), ‘예치<여치’(강원, 경기, 경북 방언), ‘값애치<값어치’(함북 방언), ‘봄부래치<봄부라치’(뿌루지의 전남 방언), ‘모개치<모가치’(경북 방언), ‘북에째<북어째’(경기 방언), ‘희부예지다<희부엌다’, ‘빨게지다<빨겅다’, ‘퍼레지다<퍼렇다’, ‘누레지다<누렇다’, ‘꺼메지다<꺼멩다’.

다.⁴¹⁾ ‘사슴’이 이러한 의미를 띠는 것은 동서양의 다양한 예술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⁴²⁾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을 임과 헤어진 여인의 사랑 노래로 읽는다면, 작중 화자의 애정 상대는 임금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나) ‘井’에 담긴 의미 : ‘우물’은 ‘사랑’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우물’의 그러한 성격은 ‘물’이 생명력의 근원이라는 점, 그곳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낭만적 공간이라는 점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물이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 사례는 고려속요 〈쌍화집〉, 고전소설 〈절화기담〉, 설화 〈지하국대적퇴치담〉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정지”의 “정”을 ‘우물’로 볼 경우, 이것은 사랑의 노래로 해석되는 이 작품의 전체적 정서 및 주제와 잘 호응한다.

다) ‘址’에 담긴 의미 : ‘址’는 ‘遺蹟地’, ‘城址’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있다가 사라지고 흔적만 남은 ‘터’를 의미한다. 존재가 아니라 부재를, 만남이 아니라 이별의 의미를 띠는 것이다. 임과 헤어진 여인의 노래로 읽히는 이 작품에서 ‘址’는 ‘흔적만 남은 사랑’의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작품의 제3연에 “떠난 입”을 가리키는 “물아래 가던 새”⁴³⁾가 등장하는 것과 조응한다.

41) 임주탁, 앞의 논문, 83쪽; 줄고, 앞의 논문, 2018, 154쪽.

42) 서양에서 사슴이 왕을 상징한다는 점은 〈윌튼 두 폭 화(Wilton Diptych)〉에 대한 E. H. 고프리치의 해석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고프리치는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작품 속 천사들의 가슴에 달린 황금 뿔을 가진 하얀 수사슴이 왕을 표시한다고 언급했다.(E. H. 고프리치, 백승길·이종승 옮김, 『서양미술사』, 예경, 2002년, 215쪽.) 동양에서 사슴이 왕이나 황제를 상징한다는 점은 ‘鹿’ 자가 “정치적 권력이나 작위를 비유한다.”는 『漢語大詞典』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比喻正權或爵位”(『漢語大詞典』 第12卷,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1281쪽.)

43) 최철, 앞의 책, 213~217쪽; 줄고, 앞의 논문, 2018, 149~152쪽.

(2) ‘御井址’로의 해석을 통한 작품의 전체적인 이해

선행연구에서 필자는 이 작품의 제8연 “미와”의 해석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유추한 바 있다. 곧 “미와”에는, 임금을 두고 쟁송하던 두 궁녀의 관계, 또는 이 작품을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어서 자신의 처지와 정서를 노래한 〈정과정〉 류의 노래로 본다면, 정적과의 갈등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⁴⁴⁾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에정지”를 ‘御井址’로 파악한 본고의 논의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에정지”가 포함된 제7연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가 ‘御井’ 터를 지나가다가 임과의 옛 사랑 또는 궁중에서 임금과 함께 지낸 지난 시절을 회상하면서 부른 노래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화자가 회상하는 옛 사랑은 제7연의 “에정지”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다. “사스미 값대에 올라서 奚琴을 혀”는 행위가 바로 임금과 화자가 나누던 옛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어정’ 터를 지나면서 임금과의 옛 추억을 떠올리는 〈청산별곡〉 제7연의 시상 전개 양상은 정약용의 〈金井에서 옛 역사를 회상하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앞에서 밝힌 대로 정약용의 경우도 ‘金井’이라는 이름의 ‘어정’ 터를 지나면서 과거 백제 왕조에서의 군신 관계를 회상했던 것이다. 물론 정약용의 시에는 〈청산별곡〉에서와 같이 여성 화자가 등장하거나 남녀 관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물’에서 임금과의 관계를 떠올린다고 하는 기본적 발상은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겠고, 두 작품의 그러한 유사성은 〈청산별곡〉 “에정지”의 해석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4) 줄고, 앞의 논문, 2020, 106~107쪽.

45) 줄고, 앞의 논문, 2018, 154~155쪽. 이 구절 외에도 임금과의 옛 사랑에 대한 비유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은 더 있다. 제3연에 나오는 “물아래 가던 새”와 “잉무든 장굴란” 또한 그러한 비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위의 논문, 152~154쪽.)

이렇게 볼 때 〈청산별곡〉은 고려속요를 포함한 다른 고전시가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적 표현 기법을 구사한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이 작품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쓴 남성 작가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표현 기법은 고려속요 가운데에서는 〈정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정철이 지은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작품을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戀君之情을 노래한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가 임금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로 바뀌어 수용되는 것은 궁중에서 향유된 고려속요의 일반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서경별곡〉, 〈만전춘별사〉, 〈가시리〉 등과 같은 고려속요 작품들이 임에 대한 사랑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임금을 향한 충성의 노래로 읽혔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 가운데 하나이다.

4. 결론

이상으로 〈청산별곡〉 제7연의 난해구 “에정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에정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지만, ‘관련 용례를 갖출 것’, ‘어학적 원칙에 부합할 것’, ‘작품의 전체적 시상이나 주제와 어울리는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본고에서 설정한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해석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기에서는 그것이 ‘御井址’의 변형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임금이 마시는 물을 길는 우물’을 뜻하는 ‘御井’은 오랜 옛날인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왕도가 있었던 수많은 장소에 존재했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 다수의 유적지가 남아있다. 그 가운데에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 유적지의 ‘御井址’와 경남 밀양시 신라 유적지의 ‘御井址’처럼 ‘御井

址’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곳도 있다.

우리의 옛 문헌에는 ‘御井’이라는 용례가 매우 많이 나타난다. ‘御井’에 ‘址’가 결합된 합성어인 ‘御井址’는 문헌상에서 용례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御井’과 다른 한자가 결합되어 형성된 ‘御井洞’, ‘御井直’, ‘御井村’과 같은 말이 사용된 점, 문헌상의 기록과는 달리 현실 세계의 언어에서는 ‘御井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산별곡〉이 향유되던 시대에도 ‘御井址’라는 단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御井址’의 조선 초기 한자음은 ‘어정지’였다. 이 ‘어정지’가 〈청산별곡〉에 기록된 형태인 “에정지”로 바뀐 것은 i-모음역행동화(움라우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어정지”의 “정”에 포함된 반모음 ‘j’의 영향으로 그 앞의 모음 ‘어’가 ‘에’로 바뀐 것이다. 국어의 역사에서 움라우트 현상은 18세기와 19세기의 교체기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청산별곡〉이 기록되어 있는 『악장가사』는 조선 초기(15~16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에정지”를 움라우트에 의한 변형으로 추정하는 것이 국어학계의 일반적 학설과 부합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에엿브다’, ‘에테’, ‘에헐’과 같은 용례가 15~18세기에 편찬된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움라우트는 18세기와 19세기의 교체기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점을 고려하면 〈청산별곡〉 제7연의 “에정지”를 한자어 ‘御井址’의 움라우트에 의한 변형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고는 〈청산별곡〉을 임과 헤어진 여인의 노래로 보는 관점에서 “에정지”를 ‘御井址’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렇게 볼 경우 임금을 가리키는 ‘御’자는 왕을 상징하는 제7연의 “사슴”과 관련되어 화자의 애정 상대가 임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고전 문학 작품에서와 같이 애정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井’은 사랑의 노래로 해석되는 이 작품의 전체적 정서 및 주제와 잘 호응한다. 어떤 것이 있다가 사라지고 흔적만 남은 ‘터’를 의미하

는 ‘址’는 ‘흔적만 남은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작품의 제3연에 ‘떠난 입’을 가리키는 “물아래 가던 새”가 등장하는 것과 조용한다.

이렇게 볼 때 “에정지”가 포함된 제7연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가 ‘御井’ 터를 지나가다가 임과의 옛 사랑 또는 궁중에서 임금과 함께 지낸 지난 시절을 회상하면서 부른 노래로 읽을 수 있다. “에정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청산별곡>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쓴 남성 작가의 작품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戀君之情을 노래한 또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E. H. 고프리치, 백승길·이종승 옮김, 『서양미술사』, 예경, 2002, 1~688쪽.
Uniconc 프로그램.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사전』, 창작마을, 2009.
- 권인한,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2009, 1~580쪽.
- 김명준, 『악장가사 주해』, 도서출판 다운샘, 2004, 1~224쪽.
- 김완진, 「〈청산별곡〉 결연에 대한 일 고찰」, 『문학과 언어』, 탑출판사, 1980, 40~42쪽.
- 김홍규 외,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1~2000쪽.
- 민중서림 편집국,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98.
- 박천수 외, 『가야의 유적과 유물』, 학연문화사, 2003, 1~493쪽.
- 성호경, 「청산별곡의 ‘에정지’에 대하여」, 『한국시가의 유형과 양식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105~113쪽.
-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7, 1~344쪽.
- 尹楮, 『無名子集』.
- 이기문,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1997, 1~169쪽.
- _____,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2009, 1~256쪽.
- 전규태, 『고려가요의 연구』, 백문사, 1991, 279~286쪽.
- 丁若鏞, 『輿猶堂全書』.
- 조운제, 『한국시가가사강』, 을유문화사, 1954, 1~463쪽.
- 최철, 『고려 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1~305쪽.
- 최철·박재민, 『석주 고려가요』, 이화, 2003, 1~373쪽.
- 『高麗史』.
- 『속악가사』(봉좌문고본).
- 『承政院日記』.
- 『악장가사』(장서각본).
-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 권재선, 「청산별곡 어석고」, 『논문집』 7, 한국사회사업대학, 1977, 199~226쪽.
- 김언중, 「청산별곡 재진단: 그 Nihilism의 여백」, 『고봉논문집』 1, 경희대학교 학도호국단, 1977, 27~37쪽.
- 김형기, 「청산별곡의 성격에 대하여」, 『어문연구』 8, 충남대학교 어문연구회,

- 1972, 15~40쪽.
- 박경래, 「움라우트」, 『새국어생활』 제9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1999, 107~112쪽.
- 박병욱, 「청산별곡의 언어유희적 해석」, 『경기어문학』 8,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158~180쪽.
-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 국학자료원, 1994, 214~243쪽.
- 서수생, 「청산별곡고」, 『교육연구지』 1,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1963, 27~48쪽.
- 서재극, 「여요 주석의 문제점 분석: 동동·청산별곡을 중심으로」, 『어문학』 19, 어문학회, 1968, 1~10쪽.
- 송재주, 「청산별곡 중 “예정지”에 대하여」, 『국어교육』 3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1, 257~269쪽.
- 신중진, 「국어 움라우트 연구사-동화주, 피동화주, 개재자음의 본질을 찾아서-」, 『울산어문논집』 15, 울산대학교, 2001, 159~183쪽.
- 이우영, 「청산별곡의 새로운 해석: 어석을 중심으로」, 『현대시학』 174, 현대시학사, 1983, 142~161쪽.
- 이인모, 「“청산별곡” 내용의 재검토」, 『국어국문학』 61, 국어국문학회, 1973, 116~122쪽.
- 임재욱, 「〈청산별곡〉 제8연의 “미와”에 대하여」, 『우리말글』 85, 우리말글학회, 2020, 93~113쪽.
- _____, 「男女相悅之詞로 본 〈靑山別曲〉」, 『어문연구』 46~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141~163쪽.
- _____, 「사가 합성의 관점에서 본 〈청산별곡〉의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175~200쪽.
- 임주탁, 「청산별곡의 독법과 해석」, 『한국시가연구』 13, 한국시가학회, 2003, 75~109쪽.
- 장지영, 「옛 노래 읽기(청산별곡)」, 『한글』 110, 한글학회, 1955, 11~20쪽.
- 장혜원, 「청산별곡 ‘예정지’의 신해석」, 『어문교육논집』 6,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1982, 153~168쪽.
- 허재영, 「수자리와 정지」,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사, 2007. 12. 6.

ABSTRACT

A New Review of “Eoijeongji(에정지)” in
“Cheongsanbyeolgok(靑山別曲)”

– Possibility of a Variation of the “Eojeongji(御井址)”

Yim, Jae-wook

This article reviews the new possibility that “eoijeongji(에정지)” in the seventh stanza of “Cheongsanbyeolgok(靑山別曲)” may be a variation of “ejojeongji(御井址).”

“Eojeong(御井),” which means “a well that collects the king’s drinking water,” existed in many places where there were royal island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Joseon Dynasty, and still remained in many historical sites throughout the country. In our ancient literature, compound words such as “ejojeongdong(御井洞),” “ejojeongjik(御井直),” and “ejojeongchon(御井村)” appear along with the word “ejojeong(御井).” The word “ejojeongji(御井址)” is also used in real-world languages. Therefore, it is plausible that the word “ejojeongji(御井址)” existed even in the era when “Cheongsanbyeolgok” was enjoyed.

The pronunciation of “ejojeongji(御井址)”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as “ejojeongji(어정지).” The change of this “ejojeongji(어정지)” to “eoijeongji(에정지),” which is recorded in “Cheongsanbyeolgok(靑山別曲),” might be due to i-vowel regressive assimilation(Umlaut). Due to the influence of the half vowel ‘j’ included in the ‘jeong(정)’ of “eoijeongji(어정지),” the preceding vowel “eo(어)” was changed to “eoi(에).”

When reading “Cheongsanbyeolgok(靑山別曲)” from the perspective of a song about a woman who broke up with her lover, the letter “eo(御)” included in “eoijeongji(御井址)” suggests that the narrator’s lover is the king symbolized by the “deer” in the seventh stanza of this work. As in other classics, the meaning of “jeong(井)” as a space of love is suited to the overall emotion and theme of this work, which is interpreted as a

song of love. “Ji(址),” which means “the place” where something disappears and merely traces are left, is interpreted as “love left only traces” and corresponds with the appearance of “a bird that has left downstream(물 아래 가던 새)” in the third stanza of the work.

Hence, the seventh stanza, which includes “eoijyeonggi(에정지)” can be interpreted as a song of a servant abandoned by the king, recalling his past love when he lived in the palace, while passing through the “eojyeong(御井)” site. This interpretation of “eoijyeonggi(에정지)” suggests that “Cheongsanbyeolgok(靑山別曲)” may be another example of a male author’s work written in the voice of a female speaker, singing of longing for a king through the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Key Words Cheongsanbyeolgok(靑山別曲), eoijyeonggi(에정지), eojeonggi(御井址), Goryeo folk song, longing for the king(戀君之情)

논문투고일 : 2021.07.26.
심사완료일 : 2021.08.09.
게재확정일 : 2021.08.11.